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이경직·김상엽 역)

워필드 · 제5장 신약성경에 나타난 성경의 단일성과 복수성

B. B. 워필드 『성경론: 성경의 영감과 권위』(이경직·김상엽 역, CLC) 제5장, 텍스트판 100-135쪽. 원래는 1910년 『프린스턴 신학 리뷰』에 실린 논문으로, 각주에 그렇게 밝혀져 있다.

🧭 흐름 한눈에

워필드는 신약이 구약을 '성경'(γραφή, 그라페)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물려받은 것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이어서 헬라어 단어들(책·글·말씀)의 뜻 차이를 살핀다. 그러고 나서 단수 “성경”이든 복수 “성경들”이든 신약은 구약 전체를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문서'로 본다는 것을 보인다. 단수형은 언제나 '한 구절'만 가리킨다는 당대 영국 학자들(라이트풋 등)의 주장은 본문 사례 19개를 들어 반박한다. 그리고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인용 방식은 성경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확신에서 나왔다고 결론짓는다. 끝으로 부록처럼 영어 'Bible', 'Holy Bible'이라는 이름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그 경로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뿌리에는 유대교의 “그 책들”이라는 말버릇이 있다고 정리한다.

📜 절별 정리

📜 1. 물려받은 말버릇 — 유대교는 성경을 어떻게 불렀나

워필드는 신약의 성경 용어가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정경'이라는 생각도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가져왔다. 정경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책들의 정해진 목록을 말한다. 유대인은 성경을 “율법서·예언서·(다른) 기록들”,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 더 줄여서 “율법”이라 불렀다. 또 “거룩한 기록들”, “그 기록”,

말씀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당연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헬라어를 쓰던 유대인들도 이 말버릇을 그대로 옮겼다. 마침 헬라어 '그라페'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라는 뉘앙스가 있어서 옮기기가 수월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법령'과 '성경' 사이를 오간다. 70인역은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이다. 다이스만(Deissmann)은 이런 헬라 법률 용어의 영향을 크게 강조했지만, 워필드는 그것이 과장이라고 본다. 요세푸스나 필로처럼 저마다 선호하는 표현은 달라도, 헬라어권 유대인 역시 결국 유대 전통의 용법을 따랐다는 것이다. 신약은 철저히 유대적인 책이다. 그래서 랍비들에게 짝이 없는 인용 방식은 신약에 하나도 없을 정도다.

1. 신약의 성경 용어는 유대교에서 물려받은 것
2. 유대인은 성경 전체를 신적 권위의 책으로 봄
3. “성경에 이르기를”·“그분이 말씀하시기를”
4. 헬라 법률 용어의 영향은 보조적일 뿐
5. 신약은 회당의 확립된 용법을 그대로 따름

> **역대상 15:15**
> 70인역에서 '그라페'가 '법령'과 '성경' 사이에서 애매하게 쓰인 예
>
>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메니라

> **다니엘 9:13**
> 70인역에서 “기록된 대로”가 분명히 성경을 가리키는 예
>
>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외경인 에스드라2서 7:22, 마카베오4서 18:14도 같은 뜻으로 인용된다.)

신약은 구약을 “옛 언약”,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율법과 선지자”, “율법”,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대표 호칭은 '그라페'(γραφή, 단수 '성경') 또는 '그라파이'(γραφαί, 복수 '성경들')다. 필로와 요세푸스는 '그람마타'(γράμματα, '글자들·글')를 더 자주 썼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말이 성경을 뜻하는 곳은 디모데후서 3:15의 “성경”(ἱερὰ γράμματα, 히에라 그람마타, '거룩한 글')뿐이다. 요한복음 5:47의 “모세의 글”과 7:15의 “글을 아느냐”는 그냥 '기록한 것', '글자'라는 뜻에 가깝다. 반면 '그라페/그라파이'는 신약에서 약 50번 나오고, 모두 전문 용어로서 성경을 가리킨다. 대부분은 구약이다. 다만 베드로후서 3:16과 디모데전서 5:18을 보면, 신약 저자들은 자기들이 쓰는 글도 구약과 함께 '성경'에 속한다고 알고 있었다. 예수님은 단수와 복수를 가리지 않고 쓰셨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과 똑같은 뜻으로 성경을 부르시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에 논증을 걸으셨다.

1. 신약에서 성경의 대표 호칭은 '그라페'
2. '그람마타'는 디모데후서 3:15에서만 성경
3. 약 50회 모두 전문 용어로서의 '성경'
4. 신약 저자들은 자기 글도 성경이라 인식
5. 예수님은 단수·복수를 차별 없이 쓰심

> **고린도후서 3:14**
> 구약을 “옛 언약”이라 부른 예
>
>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 **누가복음 24:44**
>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 구약의 세 부분 호칭
>
>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디모데후서 3:15

'히에라 그람마타'가 성경을 뜻하는 신약의 유일한 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요한복음 5:47

“모세의 글” — '그람마타'가 단순히 '기록한 것'인 예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7:15

“글을 아느냐” — '글자·학문'의 뜻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베드로후서 3:16

바울 서신을 “다른 성경”과 나란히 둠 — 신약도 성경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디모데전서 5:18

신명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성경”으로 인용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35

>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 **요한복음 7:38, 야고보서 4:5**
> 출처 구절이 분명치 않아도 구약을 염두에 둔 인용
>
> **요한복음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
> **야고보서 4: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 3. 책·글·말씀 — 세 단어의 뜻 차이

워필드는 헬라어 단어의 쓰임을 이렇게 정리한다. '비블로스/비블리온'(βίβλος/βιβλίον)은 손에 드는 '책 한 권'이다. 두루마리처럼 물건으로서의 책이다. '그라페/그람마'는 그 책에 적힌 '문서·글'이다. '로고스'(λόγος)는 그 글이 담은 '내용·말씀'이다. 둘 중 '그람마'는 물질 쪽, 곧 '책'으로 기울고, '그라페'는 위쪽, 곧 '말씀'으로 기운다. 누가복음 3:4의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에는 세 개념이 한꺼번에 나온다. 누가복음 4:17-21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책“을 받아 기록된 ”곳“을 찾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고 하신다. 신약에서 '비블리온'은 태울 수 있고, 피를 뿌릴 수 있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실제 책이다. '로고스'는 대개 기록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시를 뜻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5:25나 고린도전서 15:54처럼 “기록된 말씀”으로 쓰이기도 한다. 베드로후서 1:19-20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의 예언서 부분만이 아니라 구약 전체를 '계시'로 부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그라페'는 거룩한 성경 말고 다른 것을 가리킨 적이 한 번도 없다. 세속 문서나 '죽은 문자'(롬 2:29, 고후 3:6)에는 '그람마'가 쓰인다. 그리고 '그라페'는 사람 저자의 말이기 전에 성령의 말씀으로 여겨진다(행 1:16).

1. 비블로스=물건으로서의 책
2. 그라페=적힌 글, 로고스=담긴 말씀

5. 그라페는 성령의 말씀으로 제시됨

누가복음 3:4

책·기록·말씀 세 단어가 함께 나오는 대표 구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누가복음 4:17-21

책(두루마리)·구절·“이 글이 응하였다”의 구분

17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9:19

태울 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책'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디모데후서 4:13

가지고 다니는 책·양피지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행전 1:1

'로고스'가 그냥 “먼저 쓴 글(책)”인 예

요한복음 15:25

"율법에 기록된 말씀" — 기록된 로고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5:54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가복음 7:13

하나님의 말씀(기록된 명령)과 사람의 전통의 대조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베드로후서 1:19-20

"예언의 말씀"="성경의 모든 예언" — 구약 전체를 계시로 봄

19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20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로마서 2:29, 고린도후서 3:6

'그람마'가 '영'과 대비되는 '문자'로 쓰인 예

로마서 2:29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고린도후서 3: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사도행전 1:16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신 '성경'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 4. 복수형도 '도서관'이 아니다 — 성경들은 한 권

'그라파이'(복수)는 성경을 여러 책을 모아 놓은 '신적 도서관'으로 본 표현일까? 워필드는 아니라고 답한다. 헬라어에서는 원래 한 문서도 복수형으로 부르곤 했다. 베드로후서 3:16의 “다른 성경들”은 실제 복수이지만, 여기서 하나하나는 '책'이 아니라 '구절'이다. 로마서 16:26의 “선지자들의 글”도 히브리 성경 둘째 부분인 '예언서'만이 아니다. 같은 편지 첫머리의 “성경”(롬 1:2), 곧 구약 전체를 그 성격대로 '예언적·계시적'이라고 부른 것이다. 마태복음 26:56도 바로 앞 26:54와 병행 구절 마가복음 14:49를 보면 성경 전체다. 신약에서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킬 만큼 넓은 말이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선지자들”(25절)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27절)이 되고, 다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44절)이 된다.
결론은 이렇다. 신약에서 단수형이 성경의 '한 책'을 가리키는 경우가 없듯이, 복수형이 '여러 책의 모음'이라는 의식을 보여 주는 경우도 없다. 단수든 복수든 뜻은 같다. 곧 '하나님이 주신 한 권의 책'이다.

1. 복수 '성경들'도 한 권의 신적 책을 뜻함
2. 베드로후서 3:16의 복수는 '구절들'
3. “선지자들의 글”=구약 전체의 계시적 성격
4.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함
5. 단수·복수 모두 구약을 한 문서로 봄

베드로후서 3:16

신약에서 유일한 '실제 복수' — 성경의 여러 구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6:26

"선지자들의 글"=로마서 1:2의 "성경" 전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로마서 1:2

서신 첫머리의 "성경"과 끝의 표현이 같은 대상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마태복음 26:54, 56

"성경"과 "선지자들의 글"이 같은 것

마태복음 26:54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태복음 26:56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마가복음 14:49

병행 구절에서 그냥 "성경"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13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 — 모세오경도 예언적 말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선지자들" → "모든 성경" → 세 부분으로 넓어지는 호칭

누가복음 24:25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가복음 24:27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πᾶσα γραφή) — 고유명사처럼 쓰인 성경 전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5. 단수 '성경'은 언제나 '한 구절'인가 — 라이트풋 논쟁

'그라페'는 성경 전체를 가리키다가 개별 구절에도 쓰이게 되었다. 워필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어떤 문제에 성경을 들이댈 때는 성경 전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맞는 한 구절이 인용된다. 그런데 그 구절 안에서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구절도 "성경"이라 부를 수 있었다. 그러니 '한 구절'이라는 쓰임은 '성경 전체는 하나의 권위'라는 생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각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합리주의자 슐테스(Schulthess)는 단수형이 신약에서 결코 성경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합리주의자는 이성으로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려는 사람을 말한다. 이어서 영국의 라이트풋 주교(갈라디아서 3:22 주석)가 "단수형은 항상 특정 구절"이라는 명제를 퍼뜨렸다. 웨스트코트, 호트, 스웨트 등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를 따랐다. 워필드는 이 견해가 논리보다는 라이트풋의 명성 덕에 퍼졌다고 본다. 단수형 약 30회 가운데 19회는 그 해석에 맞추기 어렵다.

말하게 하는 '의인화'다. 관사 없이 쓰인 베드로전서 2:6, 베드로후서 1:20, 디모데후서 3:16은 '그라페'가 고유명사처럼 굳어졌다는 증거다. 라이트풋은 '성경들'에서 '성경'으로 바뀐 과정이 τὰ βιβλία(그 책들)가 'Bible'이 된 과정과 비슷하다고 했다. 워필드는 이것도 반박한다. 단수와 복수는 앞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란히 쓰였고, 둘 다 성경을 하나님의 한 율법으로 인용하던 유대인의 습관에 뿌리를 둔다는 것이다. 구약을 하나로 보는 의식은 신약 시대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먼 과거에서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1. 구절 하나도 '성경'인 건 전체의 권위 때문
2. 라이트풋: 단수형은 늘 특정 구절
3. 워필드: 단수 30회 중 19회는 성경 전체
4. 무관사 '그라페'=고유명사가 된 '성경'
5. 단수·복수는 나란히, 유대 전통에서 옴

> **갈라디아서 3:22**
>
> 라이트풋 명제의 출발점 — 실제로는 특정 구절 없이 성경 전체
>
>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 **요한복음 2:22**
>
>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 가리킬 구절이 없음
>
>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 **요한복음 20:9**
>
> 부활에 관한 “성경” — 대략적 전체 언급
>
>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 **요한복음 10: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갈라디아서 3:8

"성경이 미리 알고" — 성경의 의인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5

"성경이 말한 것" — 성경의 의인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베드로전서 2:6

관사 없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 고유명사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후서 1:20

"성경의 모든 예언" — 구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디모데후서 3:16

"모든 성경" — 관사 없는 고유명사로서의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각 부분과 구절은 전체에 깃든 권위를 옷 입고 있다."

📜 6. "기록되었으되"와 "이르시되" — 인용 방식이 말해 주는 것

구약을 하나님의 한 문서로 보았기 때문에 신약은 “기록되었으되”(γέγραπται, 게그랍타이), “이르시되” 같은 짧은 말로 성경을 인용했다. 세속 헬라어에서도 법령을 인용할 때 비슷한 표현을 썼다. 그러나 크레머(Cremer)의 지적처럼, 성경에 쓰일 때는 어떤 법적 권위보다도 큰 권위를 가리킨다. 이 표현은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고, 복음서 저자의 서술뿐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도 나온다(시험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특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홀로 쓰일 때 그 뜻이 가장 분명하다. “기록되었다”는 말만으로 논쟁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때 사람 저자에 대한 의식은 뒤로 물러나고, 그들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시선이 모인다. 출처나 저자 이름을 밝힐 때도 마찬가지다. 마태복음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διά) 하신 말씀”이라 하여,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고 선지자는 통로임을 드러낸다. 이 방식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는 곳은 히브리서다. 히브리서는 주어 없이 “이르시되”로 성경을 인용한다. 결국 복음서 저자들과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가졌다. (각주에서 워필드는 마태복음 5:21 등의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성경 인용 공식으로 보지 않는다. 청중이 선생들에게서 들은 가르침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1. “기록되었으되”만으로 최종 권위가 됨
2. 예수님도 이 공식으로 구약을 인용하심
3. 사람 저자는 뒤로, 하나님의 권위가 앞으로
4. “주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5. 히브리서는 주어 없이 “이르시되”

> **마태복음 4:4, 7, 10**
> 예수님이 홀로 쓰인 “기록되었으되”로 시험에 답하심
>
> **마태복음 4: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10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2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 말씀하신 분은 주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복음 2:15

같은 공식 — 선지자는 통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16

성령이 다윗의 입으로 미리 말씀하신 성경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사도행전 28:25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 말씀하신 것"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고린도전서 6:16

주어 없는 "일렀으되"(φησίν)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히브리서 13:5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용

>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의 의식은 배경으로 물러나고”

📜 7. 'Bible'이라는 이름의 뿌리 ① — '그 책들'(τὰ βιβλία) 논쟁

2부는 영어 'Bible'과 'Holy Bible'의 기원을 다룬다. 워필드는 자기 목적이 새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보여 주는 데 있다고 밝힌다. 네슬레(Nestle)는 “Bible이라는 단어가 유럽 언어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흔한 설명은 이렇다. 헬라어 중성 복수 τὰ βιβλία(타 비블리아, '그 책들')가 라틴어로 들어가면서 여성 단수 Biblia로 오해되었고, 이것이 서양 언어로 퍼졌다는 것이다. 테오도르 찬(Zahn)은 고대 교회가 τὰ βιβλία를 성경이라는 뜻으로 쓴 적이 없다고 부정한다. 수이서(Suicer)는 크리소스톰이 처음 이 말을 그렇게 썼다고 보았는데, 찬은 이것도 오류라고 한다. 워필드는 찬이 크리소스톰 본문을 억지로 읽었다고 본다. 크리소스톰이 회중에게 “영혼의 약인 책들을 구하라”고 할 때, 그 책들은 문맥상 신약을 포함한 성경이다. 크리소스톰보다 약 200년 앞선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오리게네스도 τὰ βιβλία를 성경 전체의 뜻으로 썼다. 쾨트샤우(Koetschau)는 오리게네스가 이 말을 구약에만 썼다고 보았지만, 워필드는 여러 호칭이 같은 범위를 가리킨다고 답한다. 또 유대인은 성경을 그 존귀함 때문에 “그 책들”이라 불렀다(단 9:2, 마카베오1서 12:9). 그러니 클레멘트2서 14장에서 τὰ βιβλία가 구약을 가리키는 것도 놀랍지 않다. 결론적으로 워필드는 찬과 달리, 초대교회의 τὰ βιβλία가 'Bible'이라는 말의 토대가 되었다고 본다.

1. 'Bible'의 유입 경로는 아직 모름(네슬레)
2. 찬: 고대 교회에 τὰ βιβλία=성경 용례 없음
3. 워필드: 크리소스톰·클레멘트·오리게네스에 있음

5. τὰ βιβλία가 'Bible'의 토대라는 데 찬성

> **다니엘 9:2**
> “책을 통해”(그 책들) — 유대인이 성경을 “그 책들”이라 부른 오래된 예
>
>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 **디모데후서 3:15**
> 관사 없이도 전문 용어로 성경을 가리킬 수 있다는 비교 근거
>
>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 8. 'Bible'이라는 이름의 뿌리 ② — 라틴어에서 'The Holy Bible'까지

라틴 교회는 처음에 헬라어 Biblia를 가져오지 않고 자기 말 liber(책)를 썼다. 히에로니무스(제롬)는 성경 전체를 Bibliotheca(신적 총서)라고 불렀고, 중세에는 이 말이 흔히 쓰였다. 교부 시대 라틴어와 고전 라틴어 사전에는 Biblia라는 낱말이 없다. 뒤 캉주(Du Cange)의 중세 라틴어 사전에 와서야 나온다. 오래된 도서 목록에서는 9세기 사례가 가장 이르다. 그 밖에 1228년 무렵의 연대기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도 나온다. 동서방 교류가 활발하지 않던 시기에 헬라어 낱말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서방에 자리 잡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Bibliotheca의 줄임말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러나 워필드는 “필요한 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이라며 판단을 미룬다. 영어에는 프랑스어를 거쳐 14세기 무렵 들어왔고, 초서는 이 말을 '성경'과 '두꺼운 책' 두 뜻으로 썼다. 'The holie Bible'이 성경 제목에 처음 나타난 것은 『비숍 성경』(1568)이다. 그 뒤 두에 구약(1610)을 거쳐 『흠정역』(1611)의 “The Holy Bible”이 표준으로 굳었다. 라틴어 'Biblia Sacra'도 16세기 들어 제목에 퍼졌고, 1590년 로마 공식판 이후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독일어·네덜란드어권에서는 “거룩한 Bible”이 어색하게 들려서 “Bibel, 곧 온전한 거룩한 성경” 같은 형태를 썼다. 워필드의 결론은 이렇다. “The

중세 용법에 기대고 있다. 그 중세 용법은 헬라 교회의 τὰ βιβλία를 빌린 것으로 여겨지고, 그 뒤에는 유대교의 말버릇이 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것이다.

1. 라틴 교회는 처음에 liber, Bibliotheca 사용
2. 라틴어 Biblia의 첫 흔적은 9세기 무렵
3. 영어 Bible은 14세기 무렵 프랑스어 경유
4. “The Holy Bible”은 1568년 비숍 성경부터
5. 흠정역(1611)으로 영어 표준 명칭이 됨

> **(해당 없음)**
> 이 절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사본·판본·사전의 역사를 다룬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정경
하나님이 주신 권위 있는 책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책들의 목록.

70인역(LXX)
예수님 이전에 만들어진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

γραφή(그라페)/γραφαί(그라파이)
'기록'이라는 뜻에서 '성경'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된 말. 앞의 것이 단수, 뒤의 것이 복수.

γράμμα(그람마)/γράμματα(그람마타)
'글자', '글'. 신약에서는 성경보다 일반 문서나 '죽은 문자'에 주로 쓰인다.

βίβλος(비블로스)/βιβλίον(비블리온)

λόγος(로고스)/λόγια(로기아)
'말씀', '신탁'. 앞의 것은 책이 담은 내용, 뒤의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γέγραπται(게그랍타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최종 권위로 끌어올 때 쓰는 인용 공식이다.

정관사/무관사
헬라어의 '그'(the)에 해당하는 말이 붙었는지 여부. 붙지 않아도 '성경'을 가리키면 고유명사처럼 굳었다는 뜻이다.

의인화
성경을 사람처럼 “성경이 말한다”, “성경이 미리 알았다”라고 표현하는 방식.

θεόπνευστος(데오프뉴스토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직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디모데후서 3:16에 나오는 영감의 핵심어다.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신약은 구약을 '그라페'(성경)라 부르는 유대교의 말버릇을 물려받았고, 이 말을 오직 거룩한 성경에만 썼다.
- 단수 “성경”이든 복수 “성경들”이든, 구약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의 권위 있는 문서로 여겨졌다.
- 한 구절도 “성경”이라 불린 것은 전체의 권위가 각 부분에 있기 때문이다. 이 쓰임은 성경의 통일성을 부정하지 않고 전제한다.

- 'Holy Bible'이라는 이름은 16세기에 굳었고 유입 경로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그 뿌리에는 유대교의 “그 책들”이 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6편 · '하나님의 감동으로' · 영감이란 무엇인가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